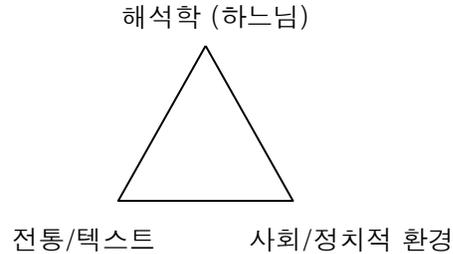


18. 성서 다시읽기 (막 12:1-17)

들어가면서. 성서 해석과 신학다시하기

- 샌더스(James A. Sanders): “해석학의 삼각형”
- 초점: 해석학, 곧 하느님 이해=> 어떤 하느님?
 (창조자/심판자 vs. 부양자/구속자)
- 우리들 말로, 어떤 이데올로기/신학/
 복음/가치관)



- 성서해석의 두 축: ①stability--성서적인가? (누구인가)
 ②adaptability--지금도 사건으로 일어나는가? (어떻게 살까?)

실례 1. 성서/전통 다시 이해하기. 아브라함/사라 이야기 => 내게/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 (정체성 형성)
 [Unspoken assumption: God is for me/us!]=Q: In what sense? (새로 만난 하나님=> 사 45:7)

- 사 51:1-3 (찬성표)
- 겔 33:24-27 (그러므로... 반대표). What's going on here?

실례 2. 다른 신학 하기

- 이사야: 예루살렘/성전 요지부동(사 31:5; 37:33-3; 시 46, 48, 76)
- 예레미야: 그런 거짓말 믿지 말라 (렘 7:4 => 사 31:5); 하나냐, ... 그러나 (렘 28:6)
- 성전은=> “만민/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”(막 11:17 <=사 56:7; 렘 7:11)

II. 성서 다시 읽기: 예

A. 포도원 비유 (James C. Scott, *Domination and the Arts of Resistance: Hidden Transcripts*)

	마가복음 12:1-12		이사야 5:1-7
주인	대지주 (헤롯당원...) =>	하느님	야훼
농부/포도원	소작인 (땅을 빼앗긴 사람들) =>	이스라엘 지배자	House of Israel, Man of Judah (예루살렘 거민, 유대 사람들?)
좋은 포도/들 포도	수확/종들(제사장, 장로, 서기관)을 죽임=>	종들은 하느님의 종들	공평, 의로움/포악, 부르짖음
결과	표면적으로 지배체제의 기득권자들이 다른 소작인을 구함	이사야 5 장과 함께 마가복음에서 뜻하는 바는 지배체제몰락 (12 절)	포도원 (government) 멸절=> 앗시리아 등장

- 이사야의 초점: 포도원(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배자)=>지배체제를 꾸짖음. 역사적 상황 이해 (제 2 강)
- 자급자족경제 (곡식, 포도, 올리브) => 수출입경제 (군수품, 고급 자재, 사치품)
- 자작농=>소작인(막 12:1-12)=>하루벌이 일꾼(마 20:1-16). 최악의 경우=> 반란, 항쟁
- 마가복음=> 농부(이스라엘의 지배자)=> 12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

- 이스라엘 왕정의 몰락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체제는 제사장/장로/율법학자 등에게로 이전. 복음서에서 이들은 예수를 대적한 인물로 묘사(막 8:31; 11:27; 14:43, 53; 15:1).
 - 대제사장, 제사장: 성전 중심으로 활동한 유대 사회, 종교적 지도층. 성전체제에서 아론의 후손은 희생제물과 정결의식 담당(막 1:44); 나머지 레위 자손은 그의 성전 일 (경영, 음악, 청소) 담당.
 - 서기관/율법학자: 문서에 능한 전문 서기관으로, 율법 해석자, 교사 및 지도체제의 대리인. 자신들만의 그룹을 형성하지는 않고 다른 그룹에 섞여 활동. 예) “바리새인의 서기관” (막 2:16). 율법에 관한 한 율법학자로 번역됨 (눅 10:25).
 - 장로: 출애굽 이후 광야생활에서 지도체제로 임명됨 (민수기 11 장)
 - 바리새인: 기원전 2 세기-서기 1 세기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던 유대 지도층. 분리주의자라는 뜻 (< פרוט >). 안식일, 정결법, 십일조, 식생활 등 히브리성서와 구전에 열거된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는 주의 (막 7:1-13). 예수를 대적 (3:6; 8:11; 10:2). 사두개인(막 12:18-27)과 달리 죽은 자의 부활을 신봉(행 23:18)
 - 사두개인: 바리새인과 함께 당시 시기 유대의 정치적 지도층 (Elite). 그러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구전(oral laws)을 부인. 부활, 천사, 영의 불멸 등 부인.
 - 헤롯당원: 헤롯 안티파스의 정책과 정부를 옹호, 지지하던 무리. 갈릴리와 베레아 통치 (막 3:6; 12:13-17)
- 비유의 결론(12 절).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했다. 고로 앞의 성전파괴/타파와 더불어 지배체제의 몰락을 암시.

B. 지도체제와 대립: 세금 문제

문제점. 오늘날 일부 기독교에서 종교/정치 분리로 오해 (롬 13:1)



<http://www.wildwinds.com/coins/sear5/s1763.html>

질문의 목적. 예수를 잡을 빌미를 얻으려 (“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”)

인두세 denarius (or “the coin which pays the census tax”)

- Is it lawful to pay a poll tax to Caesar or not? (ἐξεστίν δοῦναι κῆνσον Καίσαρι ἢ οὐ; κῆνσος=> census)
- Coin image (로마제국 식민지 상황)=> 지배체제, 복종. The inscription on this coin reads “Ti[berius] Caesar Divi Aug[usti] F[ilius] Augustus” or “Tiberius Caesar Augustus, son of the Divine Augustus.” (cf. 막 1:1)¹ On the back, Pontif[ex] Maxim[us], “High Priest” ㅋㅋㅋ
 1. Bring me a denarius and let me see it (φέρετέ μοι δηνάριον ἵνα ἴδω). 일단 돈도 없고 => 데나리온, 노동자 하루 일당 (마 20.2) 지금에 100 불정도?
 2. 형상을 보임으로써, 바리새인(소망교회, 두레마을)과 헤롯당원(정경언)의 신앙/가치관의 분열초래 (그래야 하지만, 아니면 말고)=> 성전에서 이런 동전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 자체로 황당한 일.

¹ Augustus (BCE 63–14 CE)=> “Caesar Divi Filius Augustus” (Caesar Augustus, son of the Divine). 후계자 티베리우스(BCE 42–37 CE)에 의해 신적 권위(the Divine Augustus) 부여.

